



양질의 일자리는 당신들만의 것이어야만 하나?

- 자회사 방식 밀어붙이기의 목적은 1, 2직급 그들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현재 발전현장에서는 여전히 **직접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진행 중이다. 자회사 방식에 합의한 경우조차도 **노동자 측의 주체가 용역업체 관리자**라는 점에서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발전5사 임원들은 10월 말 이사회를 개최하여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소방 용역 분야 자회사 설립 안을 가결**시켰다.

발전5사는 왜 이리도 자회사 방식에 집착하는가? 이러한 궁금증은 **자회사 사장 모집공고**를 보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남동발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자회사 사장의 연봉은 1억이며 인센티브는 최대 30%이다. 즉 **연간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자격은 **1직급(을) 이상**의 임금피크제 포함 재직자(퇴직조건부) 및 퇴직 3년 이내인 자이다.

『차후 해당직원들의 노동조합을 통한 임금상승 요구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회사 설립 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가 필요함.』

이는 10월 19일 열린 **동서발전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의 요지이다. **중부발전**은 모집공고에서 **노사관리 업무 유경험자**로,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참고로 발전5사의 각 이사회는 서로 간 내용을 공유한다. 이를테면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각 회의록에서 자회사 사업범위에 대한 문구는 ‘남동’과 ‘동서’ 이 두 단어를 제외하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발전5사의 이사회 가결안과 자회사 사장 모집공고를 종합해보면 **자회사 설립이란 모회사 1, 2직급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작 청소·경비 노동자들 대부분은 자회사 사장의 최대 인센티브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받고 있다. 더욱이 자회사 설립 시 경제성을 운운하며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하면서까지 모회사 낙하산 사장에게는 선뜻 1억 3천만 원이라는 임금을 쥐어 준다면 그걸 보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사측이 직접고용을 반대한 이유는 비용 문제였다. 그런데 자회사에는 사장만 있는 게 아니다. 발전5사의 특수목적법인(SPC) 사례에서 보듯이 법인이 설립되면 **감사, 이사(전무), 기타 관리조직** 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사측의 논리에 따르기만 해도 **법인 만들 비용을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안**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1, 2직급 당신들만의 것이어야 하니 그건 곤란한가?



해고자 원직복직 조속히 시행하라!

- 각 사별 해고자 원직복직 경과

발전노조는 서부발전 사장을 만나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11월 13일 진행된 면담은 가시적인 계획이 안 보이는 서부발전 사장의 입장을 듣고 발전노조 요구를 다시 한 번 전달하기 위함이다.

서부발전은 2001년 분사와 함께 한전으로부터 법률적, 규범적 모든 것을 승계하고도 한전해고 운운하며 해고자복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듭되는 해고자복직 요구에 마지못해 **타 발전사를 벤치마킹해 복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발전은 2명의 해고자를 복직시켰다. 이후 **10월 해고자 복직위원회를 한차례 개최**했다. 노조는 빠른 해고자 복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해고자복직위원회를 만들고 **12월 안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말 남동발전 해고자 2명 복직 후 현재 7명의 해고자가 있다.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7명의 노동자. 노동탄압으로 해고된 7명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고자들이 발전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전노조는 투쟁의 힘을 계속 모아 나갈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법 전면 개정!
비정규직 철폐!
광주형일자리 저지!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
11.21.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전국일정

서울·경기 15시 국회 앞
보건의료노조 사전대회 13시 본무대
공공운수노조·민주노총 경기본부 사전대회 14시 더불어민주당 앞
인천 14시 부평역 광장 사전 행진 13시 한국지엠
경남 16시30분 창원지방감찰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행진
경북 15시 김천시청 (13시 금속노조 현답지회)
광주 17시 광주 사랑방신론 본사
대구 14시 대구고용노동청
대전 16시 대전고용노동청 이후 행진 및 정리집회
부산 16시 부산시청 서면까지 행진
세종충남 15시30분 천안 아우리
울산 14시 태화강역 현대백화점까지 행진
전남 16시 여수SK네트워
전북 15시 풍남문 광장
제주 16시 제주시청 시청 - 민주당사 - 시청 행진
충북 15시 상당공원 도착까지 행진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

사법농단 -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연금 - 소득대체율(국민연금 수령액의 현 소득 대체 비율)은 높이고, '국가 급여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해 불안은 해소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 직접고용 해야 정규직입니다.

재벌개혁 - 지금 해야 합니다.

노동안전 - 건강하게 일할 권리입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조합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발전노조는 108명의 조합원이 함께했습니다.